

【논문】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

주 정 립

【주제분류】 사회철학, 서양근대철학, 맑스철학

【주요어】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물신주의 비판, 비판적 서술, 변증법, 사물화, 전도, 경제적 범주, 인식비판, 매개하는 운동

【요약문】 물신주의는 맑스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만 비교적 등한시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신주의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주제 중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신주의 및 그 비판에 대한 이해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이해하는 데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대한 논의에 앞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물신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 루카치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루카치는 모든 사회적 과정이 상품생산 및 교환과 결부된 물신주의 또는 사물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총체화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해방의 전망에 있어 역사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전제들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다음으로는 물신주의 비판이 맑스의 이론 전개에 있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한다. 비록 인류학적 내지 본질철학적 흔적이 「경제-철학 수고」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에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물신주의 및 사물화 비판을 위한 문제의식은 이미 초기 저작들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음이 밝혀진다. 다음으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이 서술의 방법론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상품 및 화폐의 물신주의 비판, 자본의 물신주의 비판, ‘삼위일체 정식’ 비판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고찰된다. 왜곡된 형태로서 경제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인 **인식비판**을 의미하는 동시

에 과학비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판이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물신주의 비판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성찰한다. 맑스의 물신성 비판은 추상적 사회화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또는 객관적인 인식의 비판적 분석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자체의 “전도된 구성”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I. 왜 물신주의인가?

물신주의는 맑스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만 비교적 등한시된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적 접근에 있어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물신주의는 최근 독일의 맑스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홍보문에서도 읽을 수 있듯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주제 중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¹⁾

이제까지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상품의 물신성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는 물신주의에 대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 루카치로부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통을 이루며 물신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현저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맑스에 있어 물신주의는 상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이 다루는 모든 경제적 범주에 해당되는 현상이다.²⁾ 서술의 ‘발전’과 더

1) 이 홍보문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marxherbstschule.net/10/>) (검색일: 2011. 9. 25)

2) 여기서 ‘정치경제학 비판’은 맑스가 1850년대 이후 당시 경제학의 여러 이론들과 씨름하며 쓴 글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글들 중에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나 『자본』1권처럼 맑스 생전에 출판된 것도 있지만, 『자본』2, 3권이나 『잉여가치학설사』(1862-1863),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1857-1858)처럼 사후에 출판된 것도 있다. (괄호 안은 집필 시기임)

불어 물신주의는 오히려 심화되며 『자본』제3권에서 다루는 소위 ‘삼위일체 정식’에서 물신주의는 ‘완성된’ 형태를 띠면서 그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에서 곧 열릴 토론회에서는 물신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들뿐만 아니라 물신주의와 사물화, 소외, 전도, 이데올로기, 신비화, 필연적으로 왜곡된 의식 등의 개념들 사이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도 전개될 것이라 한다. 물신주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첫 걸음으로서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의 방법론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물신주의 및 그 비판에 대한 이해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이해하는 데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논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³⁾

본 논문에서는 II.에서 우선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대한 논의에 앞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물신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커다란

3)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 중에서도 박승호의 논의가 가장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그는 ‘개방적 맑스주의’의 ‘물신주의 비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포스톤(Moishe Postone) 등의 논의에 의거해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맑스의 노동가치론은 물신주의 비판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은 맑스가 당대의 경제학자들보다 더 나은 노동가치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이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수정되어야겠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만큼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그가 “『자본론』에는 물신화된 범주 그 자체에 대한 해명”과 “그러한 범주들에 대한 물신주의 비판으로서의 사회관계적 분석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그와 결부된 “현상적 차원과 본질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라는 근본적 대립과 구분”을 강조하지만 맑스에게 정작 중요한 둘 사이의 ‘매개’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화폐형태로부터 자본형태로의 발전은 화폐형태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전개, 또는 변증법적 이행이 아니다”는 그의 주장도 맑스의 ‘비판적 서술’의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박승호 2005). 자본으로의 이행은 G-W-G’의 형태가 상품유통 영역 내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모순**을 노정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영향을 미친 루카치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II.에서는 물신주의 비판이 맑스의 이론 전개에 있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V.에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물신주의 비판이 서술의 방법론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물신주의 비판의 목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기로 한다.

II. 루카치의 상품 물신주의 및 사물화(Verdinglichung) 비판

상품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은 루카치의 주저로 꼽히는 『역사와 계급의식』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루카치는 이 저작을 통해 제2 인터내셔널의 ‘정통 맑스주의’와 1925년 이후, 즉 스탈린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맞서 “사회인식과 비판, 혁명 이론”을 하나에 담은 “당파적 총체성 의식의 입장”을 내세우고자 했다. 루카치의 논의는 이후 소위 서구 맑스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골드만(Lucien Goldmann)과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에서 그의 저작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이 맑스 이론을 수용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Behrens/Hafner 1993, 89-91).

루카치는 “상품구조의 수수께끼를 풀”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상품구조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물적인 성격이다. 이는 “한편으로 대상성의 형태로서, 그리고 (...) 이러한 형태에 상응하는 주체의 행동으로서 상품의 물신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루카치는 상품구조가 대상의 모든 존재 형태뿐만 아니라 주체성의 모든 형태에 대한 “원형”이라 간주한다.⁴⁾

4) 이처럼 루카치는 “상품관계의 구조”를 “모든 대상성의 형태들의 원형”이라 간주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맑스의 규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맑스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사물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사물성은 그 엄격하고 완전히 빈틈없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고유의 법칙성 속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그 본질의 모든 흔적을 덮어 감춘다”는 것이다(Lukács 1988, 170-171).⁵⁾ 사물화의 “주관적” 측면은 “인간의 활동이 그 자신에 대해 객관화된다는 데, 즉 상품이 된다는 데” 있다. 루카치에게 있어 자본은 “노동과정의 합리적-계산적 분해”와 동일시 되는데, 이러한 노동과정의 분해가 “상호 연관된, 그리고 생산물에서 통일체로 결합된 부분작업들의 유기적 필연성을 파괴한다. 상품으로서 생산물의 통일은 더 이상 사용가치로서 그것의 통일성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Lukács 1988, 175-178).⁶⁾

이러한 노동과정 자체가 사물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비켜나 “관조적(kontemplativ)”이 된다. 노동자가 “기계화된 부분으로서 기계적 체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그의 활동은 “활동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관조적’이며 ‘의지를 상실한’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실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상품으로 객관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있어 “단일한 의식구조”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의식의 이러한 단일화는 루카치가 사물화라고 파악하는 것의 두 가지 측면과 연관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노동과

에게 있어 가치와 사용가치의 통일로서 상품 개념은 인간의 인식과 행위의 대상으로서 사물과는 다른 것이며, 대상화(Vergegenständlichung) 또는 외재화(Entäußerung)로서 인간의 활동은 그의 ‘유적 본질(Gattungswesen)’로서 자본주의의 생산과정 속에서 노동자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도 소외된다는 것이 맑스의 상품 관계가 보편화된 세계에 대한 진단이었다(Behrens/Hafner 1993, 92).

- 5) 루카치에게 있어 빈틈없이 보이는 합리성은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가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구조는 모든 부분현상에서의 엄격히 법칙적인 필연성과 전체과정의 상대적 비합리성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Lukács 1988, 196).
- 6) 베렌스는 “루카치가 여기서 사용가치를 자본주의 이전 시기의 생산양식을 지닌 사회의 생산물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거처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사용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경주되었다는 것이다(Behrens 1984, 162).

정의 기계화와 분절화로서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적 기업의 내부 조직형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 삶 전체가 “고립된 상품교환 행위”로 원자화되고 파편화되는 것이다(Lukács 1988, 182-194).

루카치에게 있어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추상성, 계량화, 합리화, 테일러 시스템 등이다. 막스 베버로부터 받아들인 이러한 개념들이 사물화의 본질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루카치는 이것들이 보편적이며 법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사물화의 경향은 시장과 동일시된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과학, 언론, 심지어 철학에서도 “계산”과 “계량화”의 경향이 관찰됨으로써 모든 인간적 요소를 없애고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덮어 감춘다는 것이다(Lukács 1988, 176-199)7).

루카치의 이상과 같은 상품 물신주의 및 사물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루카치는 모든 사회적 과정이 상품생산 및 교환과 결부된 물신주의 또는 사물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총체화된 이해 속에서 사회적 삶의 다양한 실천적 형태들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Dimoulis/Milios 2000, 18). 이러한 총체화는 후일 ‘교환원칙(Tauschprinzip)’이 지배하는 상품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화 사고(identifizierendes Denken)’ 속에 철저히 갇혀있다는 아도르노의 사유로 연결된다. 아도르노가 이러한 사고로부터 예외적으로 오염돼 있지 않은 예술에서 저항의 희미한 가능성을

7) 루카치는 베버에 의존해 이러한 파편화와 합리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불구화’되는 경향이 관료제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특수한 종류의 관료주의적 ‘성실성’과 객관성, 관료 개개인이 처해있는 사무관계 체계 하에 필연적으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 바로 그의 ‘명예’, 그의 ‘책임감’이 그러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생각 등이 분업이 (...) ‘윤리적인’ 데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전체의 근본법주로서 사물화된 의식구조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강화이다”(Lukács 1988, 193). 이러한 진단은 예컨대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아이히만(Adolf Eichmann)의 심리적 ‘불구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할 수는 있지만, 상품 생산과 결부된 사물화 현상의 분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엿보려고 했던 데 비해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기인식”(Lukács 1988, 296)에서 해방의 열쇠를 발견하고자 했다.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 공히 “사물화된 대상형태들을 통해 규정된 사회적 직접성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이러한 상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인식적 특권”(Grigat 1999)은 루카치 스스로 주장한 ‘바, 총체화된 상품생산 구조 속에서 사물화된 ‘단일한 의식구조’에 사로잡힌 노동자의 현실과 모순된 것이다. 루카치는 이러한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실제적 의식과 당위적으로 지녀야 할 ‘객관적 의식’의 구분에 토대를 둔 ‘객관적 이해관계’를 설정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지닌 이해관계의 특수성은 “스스로를 노동계급으로서 지양하려는 욕구”에 놓여 있는데 이는 “역사철학적으로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 해방된 인류라는 유토피아와 결부돼” 있다. 루카치는 이렇게 프롤레타리아계급이 해방을 향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이는 사물화가 지배하는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로부터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사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전제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Behrens/Hafner 1993, 93).⁸⁾

루카치가 상품 물신주의 비판이 맑스 이론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 사실로부터 그가 맑스의 이론을 물신주의 비판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Lukács 1988, 297-298).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루카치가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본』 제1권의 앞부분에서 이뤄지는 상품의 물신성에 대한 비판으로 축소하는 경향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신화된 형태로서 경제적 범주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루카치는 『자본』 제3권에서 수행되는 물신주의와 신비화의 비판적 서술에 대해서 별

8)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라는 객관성과 총체성에 대한 지향이라는 주관성을 매개할 혁명적 실천은 양자를 지양하지 못한 채 “외부적 매개(äußerliche Vermittlung)”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Behrens/Hafner 1993, 94).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Grigat 1999).

Ⅲ. 물신주의 비판의 기원과 전개

‘물신(Fetisch)’이란 용어는 식민주의 시대로부터 유래한다.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피정복 부족들의 종교적 대상과 의식을 ‘물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원래 인위적이거나 틀린 것, 또는 마법에 걸린 것 등을 의미하는 포르투갈어 *feitiço*가 그 어원이라 한다. 유럽인의 눈에는 자연에 대한 무지와 불안이 ‘미개인’들로 하여금 자연적 요소들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미개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직접적 주변에 있는 대상과 결부시키며 이로써 가능해진 상징화 또는 설명을 통해 다양한 현상들을 자신의 경험세계 속에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신주의는 인류 발전의 낮은 단계의 특징으로 간주되며 ‘미개한’ 부족들의 사유가 여기에 멈춰 서있었다는 것이다(Dimoulis/Milios 2000, 12-13). 그런데 맑스가 이에 반해 인류발전의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자부심을 지닌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물신주의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맑스하우젠은 당시 물신숭배가 모든 종교의 “원형(Urform)”이라 이해되었으며 맑스에게서도 이 개념의 종교학적인 의미가 유지된다고 해석한다. “그것은 맑스가 반복적으로 (상품) 물신주의를 종교에 비유한 데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Marxhausen 1988, 211). 맑스의 가치형태 분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저명한 마크하우스 역시 이러한 비유 내지 비교가 후기 저작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적 부의 형태들 또는 경제적 범주들은 물질적 ‘자기외화(Selbstentäußerung)의 산물들’ 또는 ‘형상들(Gestalten)’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대상들은 자기외화의 ‘세속적’ 형상들로서 이제 자기외화의 ‘신성한’ 형상들인 형이상학적 및 신학적 대상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교는 주지하듯이 후기 저작에까지 견지되고 있다”(Backhaus 1989, 53).

맑스가 여기서 포이에르바하의 종교비판에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크하우스는 “맑스의 경제학 비판이 포이에르바하의 신학 및 형이상학 비판, 특히 그의 ‘발생론적-비판적 (...)’ 또는 사변적-경험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맑스가 포이에르바하의 ‘발생론적-비판적’ 방법을 경제학에 적용한 것과 관련해 바크하우스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판’의 측면인데 이는 비판 대상의 ‘내적 기원(innere Genesis)’ 또는 그것의 ‘발생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판은 ‘철학적 비판’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순을 현존하는 것으로 (...)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한다. 즉 그것의 기원, 그것의 필연성을 파악한다’(Marx 1956a, 296)”는 것이다(Backhaus 1989, 53).⁹⁾ 바크하우스가 주목하는 ‘발생론적-비판적’ 방법의 두 번째 측면은 “인간학적 측면”이다. 바크하우스는 여기서 맑스가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1843) 쓴 글에 나오는 “모든 해방은 인간의 세계, 즉 관계들을 인간 자신으로 환원시키는(zurückführen) 것”(Marx 1956b, 370)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경제학에 적용된 ‘비판’ 역시 “사물들 사이의 관계”, 즉 경제적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데 그 “인간학적 핵심”이 놓여 있다고 바라본다. 그런데 여기서 바크하우스가 분리해서 살펴본 두 가지 측면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전개되는 ‘비판적 서술(kritische Darstellung)’의 과정 속에서 내용적으로 결합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현상적으로 주어진 것을 서술하는데 이는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적 서술의 대상은 경제적 범주들인데 이것들은 사물화된 형태들로서 인간에게 ‘수수께끼’, ‘불가사의’, ‘비밀’로 나타난다. 맑스가 사물화된 형태들로서 경제적 범주 및 그를 둘러싼 ‘수수

9) 맑스는 이러한 “진정한 비판” 또는 “진정으로 철학적인 비판”에 비해 “일상적 비판(vulgäre Kritik)” 또는 “독단적 비판”은 “도처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 대상과 싸우는” 데 그친다고 꼬집는다(Marx 1956, 296).

끼끼'의 기원을 밝히는 노력은 바로 사물들 사이의 독자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현상의 본질이 노동을 둘러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는 비판적 서술의 과정인 것이다.

마크하우스의 지적을 통해 볼 수 있듯 맑스가 후기에 정치경제학 비판 속에서 경제적 범주를 싸고 있는 물신주의의 발생 또는 기원을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그 가상을 파괴하는 방법은 이미 초기에 그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맑스의 『경제-철학 수고』(18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크하우스가 밝히고 있듯 맑스는 여기서 처음으로 성찰되지 않은 “국민경제학의 전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⁰⁾ 국민경제학에서는 ‘발생론적인 발전(genetische Entwicklung)’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들이 그냥 전제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교환가치와 같은 경제학의 범주들은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암묵적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제된다는 것이다(Marx 1968, 510-511).

맑스는 프루동에 대한 비판 속에서 “국민경제학적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을 특징짓는 것이 그 분열상이라는 것이다. “국민경제학자들은 (...) 경제적 관계에 있어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각시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경제적 관계를 (...) 인간적인 것과의 차이 속에서, 즉 그 엄밀하게 경제적인 의미 속에서 파악한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의식 없이 비틀거리며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Marx 1957, 34). 여기서 ‘엄밀하게 경제적’이라는 것은 경제적 형태나 범주를 그에 대해 아무런 성찰 없이 전제하는 태도를 의미할 텐데, 이러한 범주는 이미 언급되었고 뒤에서 상세히 볼 수 있듯 물신화된 형태이다. 맑스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와 중상주의자들이 각각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 서 있다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장들이 사유재산의 대립된 두 계기, 즉 노동이라는 그 “주관적 본질”과 화폐 및 자본이라는 그 “객관적 형상”을 대변하는

10) 『경제-철학 수고』에서 맑스는 ‘국민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후기에는 그 대신 주로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것으로서 이 두 계기의 통일이 사유재산의 “모순적 본질”을 이룬다는 사실이다(Marx 1968, 530-533).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통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각각의 계기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본질로 실체화”한다는 데 있다(Backhaus 1989, 60).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이처럼 독자적 실체로 나타나는 두 계기를 비판적 서술을 통해 매개(vermitteln)시키는데 이를 통해 ‘주관적’ 본질의 ‘흔적(Spur)’이 사라져버린 ‘객관적 형태’의 기원(Genesis)에 대한 기억(Erinnerung)이 복원된다.

이는 맑스가 일찍이 루게(Arnold Ruge)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과제로 제시한 것을, 점차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 영역으로 파악한 경제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맑스는 “포이에르바하의 종교비판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목표 또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자각된(selbstbewußt) 인간적 형태로” 환원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그것은 인간들 “자신에게 불명확한, 신비스런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Marx 1956c, 346). 이는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포이에르바하의 종교비판이 “인간의 자기소외의 **신성한 형태**”의 정체를 폭로하고 난 이후, 철학의 과제로 제시한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즉 “**세속적인 형태들** 속에서 벌어지는 자기소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Marx 1956a, 379).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하인리히(Michael Heinrich)가 물신주의 비판에 있어 초기의 맑스와 후기의 맑스 사이에 일정한 단절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하인리히는 “탈주술화(Entzauberung)”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관철되는 “합리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징으로 제시한 베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선언』의 맑스 역시 “세계의 탈주술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 맑스는 “자본주의의 관철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더욱더 투명해지며 지배와 착취가 이제 더 이상 미화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명백히 드러난다”고 바라보았다는 것이다(Heinrich 2005, 179-180). 그러나 『공산주의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

미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개인들은 활동이 세계사적인 것으로 확장되면서 점점 더 그들에게는 낯선 힘 아래 복속된다. (...) 이 힘은 점점 더 대규모적으로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임이 밝혀진다”는 견해를 피력했다(Marx/Engels, 1958, 37). 맑스가 자본주의는 전통적 인습과 미신, 민족적 편견 등의 온갖 한계를 뛰어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봄으로써 그 속에서 전개되는 ‘합리화’ 과정을 인정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합리화’ 과정은 동시에 ‘낯선 힘’으로 여겨지는 ‘사물적’ 지배관계의 심화과정으로서 ‘자유의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Wallat 2007, 1). 이는 『공산주의 선언』이나 『독일이데올로기』 이전의 『경제-철학 수고』에서 이미 ‘소외된 노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소외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낯설고 적대적인 힘으로서 생산 대상과 생산 행위에 대한 자신의 관계만을 낡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과 생산물에 대해 갖는 관계도, 그리고 그 자신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관계도 낡는다. 그가 자신의 생산을 자신의 현실성 박탈로, 자신의 형벌로, 자신의 생산물을 상실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생산물로 만들듯, 그는 생산하지 않는 자의 생산 및 생산물에 대한 지배를 낡는다. (...)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관계는 자본가의 노동에 대한 관계를 낡는다”(Marx 1968, 519-520).

비록 ‘유적 본질(Gattungswesen)’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인류학적 내지 본질철학적 흔적이 『경제-철학 수고』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에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물신주의 및 사물화 비판을 위한 문제의식은 하인리히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초기 저작들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¹¹⁾

11) “여기서, 그리고 『경제-철학 수고』의 헤겔비판에서 사변적-유물론적 인간학을 뛰어넘는 소외의 구상이 발견된다. 그것이 성숙한 단계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대해 지닌 연관은 명백하다. 소외의 주제는 이미 여기에서 추상적-보편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파악과 비판인데, 이 추상적-보편적인 것 속에서 인간의 사회화는 우선 스스로를 자신의 외부에 놓으며 (außer sich setzen) 초개인적인 객관성을 생산한다. 이러한 객관성은 결국 객체로 전도된 주체에 대한 지배에 도달한다”(Wallat 2007, 2).

IV.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론과 인식비판으로서 물신주의 비판

헤겔 철학의 “본질적 목표” 중 하나는 “가상의 파괴”에 있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직접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실증주의가 철학적으로 세련시킨 ‘건전한 인간오성’이 현실 자체라고 간주하는” 가상을 파괴하는 일이다(Demmerling 1992, 73). 맑스에게 있어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표면’을 지배하는 다양한 가상을 파괴하는 것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수행하는 본질적 목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가상에 대한 파괴는 맑스와 헤겔 모두 ‘비판으로서의 서술(Darstellung als Kritik)’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전개과정은 양자의 비판 대상이 상이한 이유로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주요한 공통점 역시 발견된다.¹²⁾ ‘비판으로서의 서술’은 다른 말로 ‘변증법적 방법’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변증법이 엥겔스에 있어 “자연과 역사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입증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법칙”(Mayer 1932, 323)을 의미했다면 맑스와 헤겔에게 있어 그것은 비판적 성찰 과정을 의미했다.¹³⁾ 비판으로서 서술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대상에 대한 의식은 변화한다. 그런데 이는 외부로부터 들이댄 비판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이른바 ‘내재적 비판(immanente Kritik)’을 통해 진행된다. 여기서 각각의 의식형태는 불완전하고 모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을 강요당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며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¹⁴⁾

12) 양희석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맑스가 헤겔의 “‘논리학’의 ‘존재론’ 중 ‘질’의 장에서의 개념 전개에 대응하여 상품-화폐-자본의 개념 전개”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비판 대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차이점을 무시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양희석 2000, 43).

13) 헤겔과 맑스가 전개한 ‘비판으로서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는 풀다(Fulda 1975)와 앙게른(Angehrn 1977), 토이니센(Theunissen 1980), 멘케(Menke 1992), 뎀멀링(Demmerling 1992)을 참조.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비판적 서술의 대상은 ‘경제적 범주들’이다. 이는 맑스가 라살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즉 그것은 “경제적 범주들의 비판” 또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인데 이는 “체계의 서술이면서 동시에 서술을 통해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Marx/Engels 1972, 80).¹⁵⁾ 그런데 맑스에게 있어 이러한 범주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사회적으로 유효한,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형태들”이지만 생산관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물적으로 은폐”하는 “왜곡된 형태들(verrückte Formen)”이다 (Marx 1968, 90). 이러한 왜곡된 형태들이 ‘사회적으로 유효한’ 사고 형태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왜곡된 사고형태 속에서 사유하면서 이에 따라 이들의 실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의 경제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의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기본틀을 비판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인식비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르주아 경제학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범주들을 토대로 한 당시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과학비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러한 왜곡된 형태들을 낳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

-
- 14) 양희석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와는 달리 “『자본론』에서는 경제주체의 실천에 의한 모순의 외화가 변증법적 개념 전개를 대체하고 이 외화가 해결적인 표현방식을 빌려 서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판으로서의 서술’ 방법이 다른 아닌 변증법적 방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양희석 2000, 43). 라코비츠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모든 논증단계에서 모순이 확인될 수 있는데, 이 모순들이 경제적 범주의 결함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경제학에서 자립적인 형태라고 상상하는 모든 개별 범주가 맑스에 의해서 비판되는데, 이는 전체 범주가 지니는 내적 연관을 비판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akowitz 2000, 150).
- 15) 정진상은 맑스가 “모든 이론의 진리성은 실천만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서 “이러한 판단이 옳다면 사변철학자들처럼 인식의 주체, 객체, 범주, 전제라고 하는 모든 논의들은 전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주장이라 하겠다(정진상 2000, 27).

회적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물신주의 비판의 구체적 사례로서 상품 및 화폐 물신주의 비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품 및 화폐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

‘객관적인 사고형태’로서 경제적 범주들은 맑스에 의해 ‘물신화된’ 형태로 규정된다. 이러한 범주들로 이루어진 “상품세계의 물신성”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고유한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유래”한다.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은 상품세계의 ‘기본형태(Elementarform)’로서 상품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¹⁶⁾

“상품형태의 수수께끼는 단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즉 상품형태는 인간들에게 인간 자신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그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것처럼 또는 이 사물들의 사회적 자연특성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도 생산자들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사회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착각을 통해 노동생산물은 상품, 즉 감각적이면서 초감각적인, 또는 사회적인 사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형태와 상품들 사이의 가치관계는 “노동생산물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물적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간 자신들의

16)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본형태”(Marx 1962, 49)로서 “상품이라는 구체물”(Marx 1962b, 361)로부터 비판적 서술을 시작한다. 이는 “부르주아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덜 발전된 형태”(Marx 1962, 97)이다. 그것은 ‘구체물’이기는 하나 ‘직접적’ 인식의 수준에 있는 “관조(Anschauung)와 관념(Vorstellung)”의 대상으로서, 아직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완전히 추상적이고, 파악이 안 된 것이다. 맑스는 여기서 헤겔의 서술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헤겔은 『철학사에 대한 강의』 속에서 철학적 이념의 발전을 서술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작을 이루는 것은 즉자적인 것, 직접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 보다 풍부한 것이 보다 나중의 것이다. 최초의 것은 가장 규정들이 빈약한 것이다”(Hegel 1971, 59).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 ‘시작’과 ‘논리적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립(2004) 참조.

일정한 사회적 관계일 뿐인데, 여기서 인간들에게 사물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맑스는 상품의 물신성과 종교적 환상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러한 환상적 형태와 “유사한 예를 찾으려면 종교적 세계의 안개지대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독자적인 삶을 부여받아 그들 사이에, 그리고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립적인 형상들로 나타난다. 상품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이 그러하다. 이것을 나는 물신주의(Fetischismu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는 순간 그것에 달라붙게 된다. 따라서 물신주의는 상품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Marx 1962, 86-87).

그런데 맑스의 가치형태 분석은 보편화된 상품교환 관계가 필연적으로 화폐형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화폐의 기원을 밝히는 동시에 “상품세계의 완성된 형태”(90)로서 화폐에서는 상품에 둘러붙어 있는 물신성이 한층 더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우리는 이미 x 량의 상품 $A=y$ 량의 상품 B 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표현에서 다른 어떤 물품의 가치크기를 표현해주는 물품이 그 등가형태를 이러한 관계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연속성으로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잘못된 가상이 고착화되는 것을 추적했다. 그것은 보편적 등가형태가 어떤 특수한 상품의 자연형태와 합생(verwachsen)하거나 화폐형태로 결정화(結晶化)된 순간 완성된다. 다른 상품들이 모두 각자의 가치를 어떤 한 상품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비로소 화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보편적으로 이 상품을 통해 각자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개하는 운동(die vermittelnde Bewegung)은 그 자신의 결과 속에서 사라지며 아무런

17) 김상환은 ‘허상으로서의 화폐’를 논하는 곳에서 맑스에 있어 화폐의 기원을 밝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맑스를 인용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부르주아 경제학이 결코 시도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화폐형태의 ‘발생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화폐의 신비는 해결되어 사라질 것이다”(Marx 1962, 62; 김상환 2002, 278-279로부터 재인용).

혼적도 남기지 않는다. 상품들은 자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 고유의 가치형상을 완성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외부에 그리고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상품체로서 발견한다. 이 물품들, 즉 (...) 금과 은은 동시에 모든 인간적 노동의 직접적 화신이다. 이로부터 화폐의 마력이 비롯된다. 인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단지 원자들처럼 행위 할 뿐인데 이로 인해 인간들 자신의 생산관계가 인간의 통제와 자각된 개인적 행위로부터 독립된 사물적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런 사실은 우선 이들의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폐물신의 수수께끼는 단지 상품물신의 수수께끼가 가시화돼,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것일 뿐이다”(Marx 1962, 107-108).¹⁸⁾

‘완성된’ 등가형태로서 화폐 자체에서는 ‘매개하는 운동’이 사라짐으로써 그 발생의 ‘혼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 이로써 우리의 눈은 더욱더 그 ‘마력’에 현혹된다는 것이다.¹⁹⁾ 비판적 서술의 과제는 바로

-
- 18) 사람들이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원자들처럼 행위 함으로써 비롯되는 상품 형태의 보편화와 이와 필연적으로 결부된 사물화 및 물신주의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맑스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을, 기분전환 삼아” 상상해본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며 수많은 각자의 개인적 노동력을 의식적으로 (selbstbewußt)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지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과 노동의 산물에 대해 지니는 사회적 관계가 생산과 분배 모두에 있어서 투명하고 단순”할 것이다(Marx 1962, 92-93).
- 19) 김상환은 “일단 화폐가 등가적 교환의 준거로 확실하게 자리잡자마자 그것의 탄생 내력은 혼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화폐가 “경제적 관계를 정초하되 그 관계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초월적 근거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바라본다. 그에 따르면 “화폐의 마술은 이중의 원근법적 전도이다. 먼저 그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전도이고, 다시 그것은 관계와 실체 사이의 전도이다. 화폐(...)는 관계적 사태의 일부이되 물신화된 실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폐’라는 “자립적 실체가 ‘어떤 관념적 사물’에 불과하다”고 맑스가 강조했으며 맑스에게 있어 그것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은 맑스로부터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김상환 2002, 280-281). 김상환이 인용한 곳에서 맑스가 상품이 지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의 물리적 형태 (Körperform)와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단지 관념적인 또는 상상된 (vorgestellt) 형태”라고 한 것은 김상환의 주장과는 달리 ‘자립적 실체’로서 화폐가 아니라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형태”이다(Marx 1962, 110). 맑

이 ‘매개하는 운동’을 복원함으로써 현혹시키는 ‘형태’의 발생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의식이 그 ‘마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²⁰⁾ 이처럼 “인간적 삶의 형태들에 대한 성찰은, 그러니까 그 과학적 분석도 역시, 대체로 현실의 발전과는 거꾸로 된 경로를 밟는다. 그것은 사후적으로, 따라서 발전과정의 완성된 결과들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생산물을 상품으로 낙인찍는, 따라서 상품유통의 전제가 되는 형태들은 사람들이 (...)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하려 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삶의 자연형태로 고착화된다”(Marx 1962, 89-90).

그런데 정치경제학자들의 문제점은 “사회적 관계를 사물적으로 은폐하는” 이 ‘왜곡된 형태들’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이것들이 “이미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90)—성찰하지 않고 오직 그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하려 한 데 있다. 스미스(Adam Smith)나 리카르도(David Ricardo)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할 때 지출된 인간 노동의 물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발견을 한 것은 “인류의 발전사에서 신기원을 여는” 업적이었음에도 불

스 자신이 “가치의 척도”로 기능하는 데 있어 화폐가 “단지 상상된 또는 관념적 화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로부터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이론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Marx 1962, 111). 김상환은 화폐가 금화에서 태환지폐, 불태환지폐, 신용카드로 변천하면서 결국 “순수한 자기지시적 기표인 씨뮐라크르(simulacre), 허상으로 변신했다”고 진단하면서 “탈근대가 씨뮐라크르의 시대”라며 이것은 “기호가 기능하는 교환의 질서”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명을 떨친 주택저당증권과 자산저당증권 등 온갖 파생금융상품들이 난무하는 소위 ‘유동화시장’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을 법한 주장이지만 바로 이러한 대형 위기를 통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만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든” 신용제도의 “좀 더 일반적인 교란과 함께 화폐는 계산화폐의 단지 관념적인 형태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아무런 매개도 없이 경화(hartes Geld)로 돌변한다”(Marx 1962, 152).

- 20) 비판적 서술에서 ‘매개(Vermittlung)’ 개념이 방법론적으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자본』번역본이 지닌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신준의 번역본에서 이 개념을 살리지 못한 채 ‘매개하는 운동’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번역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마르크스 2008, 159).

구하고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대상적 가상”(Marx 1962, 88)을 결코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왜 이러한 내용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 그러니까 왜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노동을 노동시간 길이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왜 노동생산물의 가치크기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Marx 1962, 95). 경제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조차 이러한 형태를 의문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또는 필연적인 것—“생산적 노동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자연필연성”(Marx 1962, 95-96)—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제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형태와 결부된 물신주의에 빠지게 된다.²¹⁾

2. 자본물신에 대한 비판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에 대한 논의가 루카치로부터 아도르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우 상품의 물신성에 대한 비판에만 주목해왔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치경제학 비판의 대상인 경제적 범주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물신화된 의식형태들이다. 따라서 물신주의 비판은 서술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주요한 범주로서 ‘자본’의 물신성에 대한 비판을 그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개진되고 있는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²²⁾

맑스는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의 일반적인 성격이 화폐 속에서 마치 어떤 사물의 속성인 양 나타나는 것처럼 생산과정 내에서 이미

21) 사람들이 노동생산물의 가치형태를 “사회적 생산의 영원한 자연형태로 착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치형태, 그러니까 상품형태, 더 발전된 것으로 화폐형태, 자본형태 등이 갖는 특수한 점도 역시 간과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가치크기를 노동시간을 통해 측정하는 데 대해 얼마든지 의견일치를 보는 경제학자들에게서 일반적 등가물의 완성된 형태인 화폐에 대한 완전히 다양하고 모순된 관념들을 발견하게 된다”(Marx 1962, 95).

22)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은 1863년부터 1867년 사이에 쓰인 원고 속에 들어 있다.(Marx 1988, 119-125).

자본의 일부가 되어버린 노동의 모든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에 내재하는 속성인 것처럼 나타난다”면서 그 몇 가지 계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노동이 **노동력의 표현**으로서 (...) **개별 노동자**에게 속하지만 (...), **그에 반해** 각각의 노동력이 단지 전체 작업장을 형성하는 전체 노동력의 특수한 부분으로서만 기능할 뿐인 **사회적 결합**(Combination)은 이 노동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 **자본주의적 배치**(Arrangement)로서 대립한다는 점, 즉 그것에게 **강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 역사적으로는 특유의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함께 비로소 발전한다는 점, 그러니까 자본관계에 내재하는 그리고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과 더불어 **객관적 노동 조건**들이 변화된 모습을 취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맑스에 따르면 “그것들은 집중된 생산수단으로서 (...)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의 생산조건**의 규모와 효과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결합 자체는 차치하고 이러한 **노동조건**의 **사회적 성격**은—여기에는 무엇보다 그 기계 형태와 온갖 형태의 고정자본이 속한다—완전히 자립적인, 노동자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자본의 존재방식**으로, 따라서 노동자와는 상관없이 **자본가**에 의해 배치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품 및 화폐의 물신성에서 보았듯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마치 어떤 사물 자체의 사회적 속성인 양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생산조건이 결합된 노동의 **공동의**(gemeinschaftlich) 생산조건으로서 지니는 **사회적 성격**은 노동자들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생산조건들 자체에 속하는 **자본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은 사회적 발전의 일반적인 지적 산물”인데 이러한 과학이 자본주의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분리된 채 물질적 생산과정에 적용”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 발전은 자본이 그것을 노동에 대립해 이용하기 때문에, 즉 노동에 대해 자본의 생산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발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있어 노동력의 공허화(Entleerung)와 궤를 함께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는데 이는 특유의 사회적 생산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요소들로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노동의 사회적 결합과 이러한 노동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기계를 비롯한 공동의 생산수단, “자연력과 과학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 모든 것들이 개별 노동자들에게는 낯설고, 물적이며, (...)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자립적인 것으로서 맞서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자본의 힘으로서 맞서 있다. 그것들은 그 원천에서 보면 결국 노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별 노동자의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 및 이러한 발전의 조건들이 **자본의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물적인 속성으로 전위되는 것(Transposition)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이러한 **소외된** 형태 속에 놓인 기계의 장점이나 과학의 적용, 발명 등이 **필연적인** 형태로,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자본의 속성**으로 상상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가 된다”(Marx 1988, 119-125).

3. 완성된 물신행태로서 “삼위일체 정식”

맑스는 『자본』제3권의 “삼위일체 정식”을 다루는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치와 부 일반의 구성요소들과 그 원천 사이의 관계로서 자본-이윤 혹은 더 정확하게는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경제적 삼위일체 속에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신비화,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 소재적(stofflich) 생산관계와 그 역사적-사회적 규정성의 직접적 합생(Zusammenwachsen)이 완성되어 있다”고 바라본다. “그것은 마법에 걸려 있고 전도되어 거꾸로 선 세계로서 자본씨(Monsieur le Capital)와 토지부인(Madame la Terre)이 사회적 성격(Charakter)이자 동시에 직접적으로 단순한 사물로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과 토지, 노동은 서로 천양지차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그것들은 그 소유자에게 ‘소득의 원천(Revenuequellen)’이라는 점이다. 자본은 이윤 또는 이자를, 토지는 지대를, 노동은 임금을 가져다준다. 맑스는 『자본』에서 가치 및 잉여가치가 자본주의에 고유한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며 자본가에 귀속되는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서 이윤과 이자, 지대 등의 형태로 분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자본가, 토지소유자, 노동자라는 생산행위자들(Produktionsagente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눈에 왜곡되게 나타난다. 맑스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듯 이윤 및 이자, 지대, 임금은 모두 사회적 노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가치의 상이한 독자적 원천이라 여겨진 자본과 토지, 노동의 산물인 양 나타난다. 이들은 자본과 토지, 노동의 소유자들이 각각 그들의 ‘생산요소’가 생산물의 가치를 늘려준 만큼 소득으로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는 ‘특정한 사회적 형태’와 ‘소재적 존재(stoffliches Dasein)’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버리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노동이 임금노동과 일치한다면, 노동조건이 노동에 대립해 서있는 특정한 사회적 형태 역시 그 소재적 존재와 일치한다. 그

렇게 될 때 노동수단은 그 자체로서 자본이고, 토지는 그 자체로서 토지소유이다. 그렇게 될 때 노동에 대한 이들 노동조건인 형태적 자립화, 즉 그것들이 임금노동에 대해 지니는 자립화의 특수한 형태는 사물로서, 즉 물적 생산으로서 그것들과는 분리될 수 없는 속성, 생산요소로서 그것들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내재적으로 생성된 특성이 된다. 그것들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특정한 사회적 성격은 그것들에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히, 생산과정의 요소로서 부여된 물적 성격이 된다”는 것이다 (Marx 1964, 833).

이처럼 자본, 토지소유, 임금노동이라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형태들이 생산수단, 토지, 노동이라는 소재적 생산조건들과 동일시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역사적 관계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물적인 근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가치 및 잉여가치, 화폐, 가격, 자본 등의 ‘발생기원’의 희미한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전체 내적 연관이 지워져 있다”. 맑스는 이를 “부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에 대해 독자화되고 화석화되는 것(Verknöcherung)”, “사물의 인격화(Personifizierung)와 생산관계의 사물화”, “일상의 종교”라 지칭하고 있다. ‘삼위일체 정식’의 “이러한 소외되고 불합리한 형태들” 속에서 “실제의 생산행위자들이 (...) 완전히 편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그것들이 가상의 형태들인데 생산행위자들이 바로 이 가상 속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이 가상과 관계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정식은 그것이 지배계급의 수입원천의 자연필연성과 영원한 권리를 선포하고 하나의 교리로 떠받들으로써 동시에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고 있다”(Marx 1964, 838-839).²³⁾

우리는 앞에서 이미 비판적 서술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추상적이고 단순한 ‘상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았다. 상품과 가

23) 이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은 전도된 의식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물신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치, 화폐, 상품유통 등은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으로서 생산과정에 대한 고찰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최초의 직접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풍부하게 규정된,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것으로서 가치는 이제 다시 자본주의의 ‘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표면에서 보이는 경제적 관계의 완성된 형상은 그 실제적 존재에 있어서, 따라서 이 관계의 담당자(Träger) 및 행위자들(Agenten)이 이 관계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갖는 관념들 속에서도 역시 그 내적인, 본질적인, 그러나 흔적이 사라진 핵심형상 및 그에 부합하는 개념과는 매우 다르고, 실제로는 전도돼 있으며, 대립된 것이다”(Marx 1964, 219). 정치경제학 비판의 서술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완성된’ 형태일수록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왜곡된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풍부해진 규정으로써 다시 도달한 ‘표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²⁴⁾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풍부해진 규정을 통해 그 이전에는 파악될 수 없었던 ‘소외되고 불합리한 형태들’과 ‘본질적인 핵심형상’이 매개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들의 ‘직접성’이 파괴되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이 눈에 드러나게 된다.

V.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신화된 의식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내적 운동법칙 및 본질적 구조에 대한 왜곡된 표현인 동시에 왜곡된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이라는 점이다. 생산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사적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그것의 실체로서 나타난다. 즉 개인들이 노동 속에서 맺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로서가

24) 물론 이는 자본주의의 ‘표면’, 즉 현상 영역에서 ‘완성된’ 범주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 사유하고 행위하는 생산수행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판적 서술을 통해 완성된 범주와 본질적 핵심형상과의 연관을 인식하고 있는 비판적 두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라 개인들의 물적인 관계 및 사물들의 사회적인 관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Marx 1962, 87). 맑스의 비판은 이렇게 왜곡된 의식을 낳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겨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르주아 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을 통해 이론화된 것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물신성을 통해 “필연적으로 그릇된 현실 인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맑스의 물신개념은 따라서 왜곡된 현실인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회화의 물적인 매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발라트(Hendrik Wallat)는 이를 “실제의 사물화(Real-Verdinglichung)”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가상이 아니며 고유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특성은 “자기연관적 매개(selbstbezügliche Vermittlung)를 자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을 타율적으로 규정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매개 ‘형태’로서 가치는 마치 ‘자동적인 주체’인 양 자기증식 운동의 “자기연관적 내용”이 되는데 이에 반해 생산수행자들은 맹목적이고 자립화된 사회적 연관의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이처럼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낳는데 물신 개념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현실이 상품과 화폐, 자본 등 사물들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 양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된 인식은 우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추상적인 사회화가 필연적으로 낳는 신비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맑스의 물신성 비판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왜곡된 또는 객관적인 인식의 비판적 분석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 자체의 “전도된 구성”을 극복하는 일이 된다(Wallat 2007). “**실제적** 전도는 왜곡된 형태 속에서 표현되는데, 이러한 왜곡된 형태는 이 생산방식의 수행자들의 관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생산되고 있다”(Marx 1962c, 445).

이처럼 물신화된 의식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일상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한 물신화의 극복은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의 극복에서만 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된다. 맑스는 이러한 극복의 가능성이 물신화된 형태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 사회적 개인의 형성과정을 통해 잉태되고 있다고 바라본다.²⁵⁾

투 고 일: 2011. 10. 28.
심사완료일: 2011. 11. 9.
게재확정일: 2011. 11. 10.

주정립
5·18기념재단 상임연구원

25)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라코비츠(Rakowitz 2000, 175-195) 참조.

참고문헌

-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현대 프랑슈철학의 쟁점』, 파주: 창작과비평사, 2002.
- 박승호,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의 방법론적 의의”, 『사회경제평론』 제24호, 2005.
- 양희석, 「가치의 변증법과 형이상학. 『강요』와 『자본론』에서의 헤겔-마르크스 관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가치론』, 2000, 41-92쪽.
- 정진상, 「마르크스 사회과학과 실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가치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9-40쪽.
- 주정립, 「단순상품생산과 논리적 또는 역사적 ‘발전’, 그리고 ‘시작’의 문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1호, 2004, 343-365쪽.
-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자본. 경제학 비판』I-1,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Anghern, Emil,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Diss.), Berlin/New York: de Gruyter, 1977.
- Backhaus, Hans-Georg, “Einige Aspekte des Marxschen Kritikbegriffs im Kontext seiner ökonomisch-philosophischen Theorie”, Marx-Engels-Stiftung e. V. (ed.), *Marx-Engels-Forschung heute I. “Kapital”-Interpretation-Vormärz-Forschung-Formationstheorie*, Neuss: Edition Marxistische Blätter, 1989.
- Behrens, Diethard, *Zur Kritik marxistisch-leninistischer Naturtheorien*, Dissertation im Fachbereich “Gesellschaftswissenschaften” der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 zu Frankfurt am Main, 1984.
- Behrens, Diethard, Kornelia Hafner, “Totalität und Kritik”, Diethard Behrens (ed.), *Gesellschaft und Erkenntnis. Zur materialistischen Erkenntnis-und Ökonomiekritik*, Freiburg i. Br.: Ça ira-Verlag,

1993, pp. 89-128.

Demmerling, Christoph, “Philosophie als Kritik. Grundprobleme der Dialektik Hegels und das Programm kritischer Theorie”, Christoph Demmerling and Friedrich Kambartel (eds.) *Vernunftkritik nach Hegel: analytisch-kritische Interpretationen zur Dialektik*, Frnkfurt/M.: Suhrkamp, 1992, pp. 67-99.

Dimoulis, Dimitri, Jannis Milios, “Werttheorie, Ideologie und Fetischismus”,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1999*, Berlin-Hamburg: Argument, 2000, pp. 12-56.

Fulda, Hans Friedrich, “These zur Dialektik als Darstellungsmethode (im »Kapital« von Marx)”, *Hegel-Jahrbuch 1974*, Köln, 1975, pp. 204-210.

Grigat, Stephan, “Was bleibt von Geor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Streifzüge* 2/1999.

(<http://www.cafecritique.priv.at/pdf/lukacs.pdf>) (검색일: 2011. 9. 30)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I* (1833). *Werke 18*, Frankfurt/M.: Suhrkamp, 1971.

Heinrich, Michae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ine Einführung*, Stuttgart: Schmetterling Verlag, 2005.

Lukács, Georg,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Studien über marxistische Dialektik* (1923), Darmstadt: Luchterhand, 1988.

Marx, Karl,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Kritik des Hegelschen Staatsrechts”(1843), *Marx-Engels-Werke(MEW) Bd. 1*, Berlin: Dietz, 1956a, pp. 201-333.

_____, “Zur Judenfrage”(1843). *MEW Bd. 1*, Berlin: Dietz, 1956b, pp. 347-377.

_____, “Briefe aus den ‘Deutsch/Französischen Jahrbüchern’”(1843), *MEW Bd. 1*, Berlin: Dietz, 1956c, pp. 337-346.

_____,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rster*

- Band.* (1890), *MEW Bd. 23*, Berlin: Dietz, 1962.
- _____, “Randglossen zu A. Wagners ‘Leh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1879). *MEW Bd. 19*, Berlin: Dietz, 1962b, pp. 355-383.
- _____, *Theorien über den Mehrwert. Dritter Teil.* (1890), *MEW Bd. 26.3* Berlin: Dietz, 1962c.
- _____,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Dritter Band.* (1894). *MEW Bd. 25*, Berlin: Dietz, 1964.
- _____,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1844), *MEW Ergänzungsband. Erster Teil*, Berlin: Dietz, 1968, pp. 465-588.
- _____, *Ökonomische Manuskripte. 1863-1867. Teil 1. Karl Marx-Friedrich Engels-Gesamtausgabe(MEGA). Abt. 2, Bd. 4. Teil 1*, Berlin: Dietz, 1988.
- Marx, Karl, Friedrich Engels, “Die heilige Familie oder Kritik der kritischen Kritik. Gegen Bruno Bauer und Konsorten”(1845), *MEW Bd. 2*, Berlin: Dietz, 1957, pp. 3-223.
- _____, “Die deutsche Ideologie” (1846). *MEW Bd. 3*, Berlin: Dietz, 1958, pp. 9-530.
- _____, *Briefe über “Das Kapital”*, Erlangen: Politladen, 1972.
- Marxhausen, Thomas, “Die Theorie des Fetischismus im dritten Band des ‘Kapitals’”,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Heft 25, 1988, pp. 209-243.
- Mayer, Gustav, *Friedrich Engels. Eine Biographie. Bd. II* (1932), Frankfurt/M.: Ullstein, 1975.
- Menke, Christoph, “Der ‘Wendungspunkt’ des Erkennens. Zu Begriff, Recht und Reichweite der Dialektik in Hegels Logik”, Christoph Demmerling and Friedrich Kambartel (eds.), 1992, pp. 9-66.
- Rakowitz, Nadja, *Einfache Warenproduktion. Ideal und Ideologie*,

Freiburg i. Br.: Ça ira-Verlag, 2000.

Theunissen, Michael, *Sein und Schein. Die kritische Funktion der Hegelschen Logik*, Frankfurt/M.: Suhrkamp, 1980.

Wallat, Hendrik, Der Fetisch-die marxsche Theorie verrückter Verhältnisse. Rezension zu: Stephan Grigat, *Fetisch und Freiheit*, ca ira 2007, 2007, pp. 1-5.

(http://www.ca-ira.net/verlag/rezensionen/pdf/grigat-fetisch.freiheit_rez-wallat.pdf) (검색일: 2011. 9. 30)

ABSTRACT

Critique of Fetishism in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hu, Choeng-Lip

'Fetishism' is sometimes referred to in discussions on Marx's theory. Nonetheless, one can say it is rather a neglected theme. However, fetishism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mysterious' themes in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which is still debated today. The understanding of fetishism and its critique plays a crucial role in understanding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his work gives at first a critical re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fetishism by Georg Lukács, which deeply influenced interpretations of fetishism until the 1960s, before discussing Marx's critique of fetishism. Lukács reveals a totalized understanding which comprehends all of the social processes as resulting from fetishism or reification combined with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commodities. It is also shown that he relies on premises of philosophy of history and anthrop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mancipation.

Subsequently, the work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for the development of Marx's theory. Although some anthropological vestiges remain in the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of 1844, it can be proven that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and reification, which will be

later fully developed in the work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s already contained in the early works. The work then considers the critique of fetishism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methodology of representation in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hrough concrete cases, such as the critique of commodity and money fetishism, the critique of capital fetishism and the critique of the Trinitarian formula. It is shown that the critique of economic categories as distorted forms constitutes a fundamental critique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a critique of science; that this critique is carried out as a critique of fetishism. Finally, the work gives a brief reflection of the object of the critique of fetishism. It shows that Marx's critique of fetishism not only constitut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torted or objective knowledge of the reality of abstract socialization, but it also aims at overcoming the 'inverted constitution' of this knowledge itself.

Keywords: Marx,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ritique of Fetishism, Critical Representation, Dialectic, Reification, Inversion, Economic Category, Critique of Knowledge, Mediating Movement